자국 노동자들 돕는 日베트남사찰

대은사, 코로나19 이후 활동범위 더 넓어져

박영빈 객원기자

해외서 자국 스님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있는 것을 알면 큰 위안 받을 때가 있다. 11월 3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일본의 베트남 사찰 '대은사(大恩寺)'와 주지인 틱담치 스님을 특별 보도했다.

도쿄 근교의 사이타마현(埼玉縣) 혼조지(本庄市)에 소재한 베트남 불교사찰 '대은사(大恩寺)'. 2018년에 창건된 이곳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현지에서 베트남 불자들이 마음을 달래는 신행 중심지다. 일본 전국에 산재한 베트남 불교사찰과 법당은 총 10곳으로, 대은사는 주지 스님을 비롯해 베트남 대중들이 모여 정진하는 도량이다.

주지인 틱담치 스님은 2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온 비구니 스님으로 '재일 베트남 불교신자회' 회장을 맡고 있다. 7세에 동진 출가하여 호치민에 있는 사찰에서 정진 중, 2001년 불교학 연구를 위해 일본에 유학 온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그러던 중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을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구호활동을 시작하며 대은사를 창건하게 됐다.

그동안 대은사는 단순한 베트남 사찰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찾기 힘들거나,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탈출한 이주 노동

2018년 창건후 신행중심지
재일베트남 불자들 운집해
상담·처우개선 등 앞장서

자들이 몸을 의탁하는 쉼터로도 활용되어 왔다.

틱담치 스님은 "코로나 19 확산 전에도 20인 정도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팬데믹 이후 한때 70인 정도의 노동자들을 수용하기도 했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대은사 측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식료품과 생필품 제공, 혹은 신원보증이나 임시보호 등 활동을 해



10여년 넘게 일본엑서 베트남인들을 도와온 틱담치 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왔지만, 코로나 사태 후 실직한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의 도움 요청이 늘고 있다. 요청 쇄도로 이를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은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일 베트남대사관과 제휴하여 귀국 수속에서부터 공항까지의 배웅 등 2000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을 지원했다. 사찰 내 수용이 어렵고, 수용인원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3곳에 임시 쉼터도 개설했다. 대은사의 이러한 노력이 알려지며 일본 내 베트남 이주민들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틱담치 스님은 "일본에서의 적은 임금도, 베트남에서는 큰 돈"이라며 "그러다보니 베트남 노동자들이 가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현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틱담치 스님에게도 3번이나 자살미수 끝에 찾아 온 노동자도 있었다고 한다. 스님은 "사고사나 병사뿐만 아니라 매년 5, 6인의 자살자가 나온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 이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버티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대은사는 수용인원 포화와, 베트남 불자들 바람으로 도쿄 근교 도치기현(栃木縣)에 대은사 분원을 개원한 상태다.

틱담치 스님은 "힘들 때 도와주는 다른 동포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내 내몰리고 쫓겼을 때 '마지막엔 대은사가 있다' 고 생각하고 찾아와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호활동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00여 대중이 머문 가람, CG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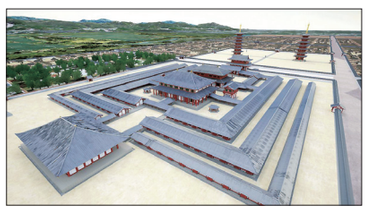
고대 일본국제도량 다이안지(大安寺) 눈길

12월 1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나라시의 남쪽에 지리한 다이안지(大安寺) 옛모습을 CG로 복원해 공개했다.

8세기 경, 지금의 나라를 수도로 한 나라시대에 대가람으로 창건됐던 다이안지는 죠메이 일왕의 발원으로 세워졌다. 그 규모와 위세로 한때 토다이지에 대비되는 난다이지(南大寺)로 불릴 정도였다. 당시의 규모는 약 2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7층 목탑이 산문 앞에 나란히 서고, 불당을 제외하고도 승당과 강당등 100여동의 전각이 늘어선 웅장한 모습이었다. 당시 사료에 따르면 최전성기엔 887명의 대중 스님들이 머물렀고, 인도나 베트남에서 온 스님들도 머물며 학인들을 지도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오랜 전란과 자연재해로 사세가 쇠퇴하면서 현재는 약 1만 평방미터 가량의 부지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목탑을 비롯한 여러 성보들도 소실되거나 유실됐다. 다이안지 측은 "오래전부터 옛 모습을 되찾기를 발원했으나, 이미 옛 부지에 민가나 상점 등이 자리 잡는 등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사찰 측은 나라문화재연구소의 감수 하에 CG복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료분 스님은 "현실적으로 옛 모습을 복원한다고 해도 일부를 재건하는데 불과하다"이라며 "그러나 CG를 통해 복



CG로 복원된 최전성기의 다이안지 전경.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원한다면 최전성기 가람 모습을 그대로 재현 가능하다. 당시 문화의 정수를 재현하고자 한다"며 CG복원에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당시 가람을 모두 잃어버린 다이안지의 실제 모습은 베일에 싸있다. 조사에 임한 전 나라시 매장문화재 조사센터장인 모리시타 에스케 박사는 "식당의 위치나 금당의 구조 등에 대한 해명이 관제로 남아있다. 사찰의 격은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하여, 남은 자료가 빈약하다"며 완벽한 재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CG복원에 드는 비용은 약 3천만엔(한화 약 3억원). 다이안지측은 사찰의 예산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완성은 내년 3월을 목표로 내년 4월 말에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다이안지 특별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료분스님은 "그 옛날 융성함을 자랑했던 사찰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간다라 문명' 다큐, 스리랑카 상영

파키스탄 · 스리랑카 공동 제작

1~7세기 간다라 문명 소재
드론 활용해 전체풍경 담아
스리랑카 현지 영화관 상영

1~7세기 파키스탄 지역에서 번영했던 간다라 문명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간다라: 파키스탄의 불교 유산'이 화제다.

파키스탄의 국영 통신사 APP(Associated Press of Pakistan)는 지난 12월 5일(현지시간) "이 다큐멘터리는 간다라 문명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하고 드론을 활용해 유적지의 전체 풍경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푸르른 산간 지역의 고산(高山)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그 속에 자리 잡은 불교 유적지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며 "조각상과 부도, 법당, 가옥 등 간다라의 건축 · 석조 작품과 유적에서 유적으로 이어지는 지그재그 트랙이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덧붙였다.



간다라 문명이 소개된 다큐멘터리 '간다라: 파키스탄의 불교 유산'. 사진출처=APP

'간다라'는 향기의 땅을 의미한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북서부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교차로로 일컬어진다. 이후 문명은 아프카니스탄과 포토하르 고원(Potohar plateau), 신드(Sindh) 등 일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부처님 치아가 탁실라 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대학 중 하나이자 12세기경 발견된 가장 신성한 불교 본거지로 평가 받는 탁실라(Taxila)도 이 지역에 있다.

다큐멘터리 '간다라: 파키스탄의 불교 유산'은 이러한 유산들을 전 세계 불교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스리랑카에 있는 파키스탄 고등판무관 사무실과 시디비나약 씨네아트 유한회사 등이 협업했다.

프로젝트의 총 책임은 아그라히라 카나파 테로(Agrahera Kassapa Thero)가, 콘셉트와 대본은 비드야조티(Vidyajothi) 컨설팅 디렉터가 맡았다.

간다라 지역 각지에서 발굴된 불교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도 집중 조명한다. APP는 "석공예 · 유물 · 도구 등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불교 유물들은 관객들을 과거 문명으로 가는 수 백 년의 긴 여행으로 안내한다"며 "간다라 문명은 세계사의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라는 형제 국가 간 문화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교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스리랑카 현지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6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와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 간 양자 협상 이후 스리랑카 총리의 관저인 템플트리(Temple Trees)에서 최초 상영됐다.

이 자리에는 임란 칸 총리와 마힌다 총리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국회의장, 국무장관, 국회의원과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라다크불교협 "불교女, 무슬림 개종 반대"

라다크 부지사에 강제결혼 반대성명…집단 폭동 경고

라다크불교협회(Ladakh Buddhist Association)가 불교도 소녀의 무슬림과의 강제결혼에 문제를 제기했다. 불교 소녀들이 결혼후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Indiatoday) 등 외신 매체의 12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라다크불교협회는 라다크 부지사 라다 크리슈나 마투르(Radha Krishna Mathur)에게 '무슬림 청년이 불교도 소녀와 강제적으로 결혼했다'며 소녀를 가족에게 되돌려 보낼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매체는 현지 정보통의 말을 인용해 "라다크 지역에서 종교 간 결혼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사례가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며 "몇 년 전 수 십명의 불교도들이 이슬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일부 불교도들의 행동이 라다크불교협회를 움직이게 했다"고 설명



했다.

라타크불교협회는 라다 크리슈나 마투르 부지사에게 보낸 성명에서 "종교간 결혼의 유일한 동기는 강제 개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라다크에서 '매혹된' 결혼을 통한 지역사회 내 강제 개종은 사회 폭동을 촉발해 사유 및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교 소녀를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집단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